‘1년 허송’ 원효사지구 상가 갈 곳 찾았다

충효동 평모들로 이전…국립공원-광주시-상인들 합의

2020년대 초반까지 마무리…원효사 계곡 환경복원 속도

무등산 원효사 집단시설지구(상가시설) 이주 대상지가 광주시 북구 충효동 평모들(들판)로 새롭게 확정됐다.

애초 이주 대상지로 선정됐던 취가정 일원이 문화재 영향권에 들어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 진지 1년여만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광주시, 상가 주민들 모두 평모들로 옮겨가는데 합의한 만큼 이주단지 조성과 함께 노후 상가 시설 난립으로 훼손됐던 원효사 계곡 주변 환경 복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무등산 원효사 계곡을 중심으로 영업 중인 상가 39곳의 이주 대상지로 북구 충효동 평모들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무등산사무소는 광주시, 원효사 상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지난해 말 이주 대상지를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며, 늦어도 오는 2020년대 초반까지는 이주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앞서 무등산사무소는 지난 2014년 말 무등산 훼손지 복원 사업의 하나로 원효사 계곡에 영업 중인 상가를 북구 충효동 취가정 인근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상가 주민들의 뜻을 반영한 결과였다. 상업시설 1만2540㎡, 화장실·주차장 등 공공시설 1만3155㎡, 녹지 공간 2만1305㎡ 등 이주단지 조성 예정 부지만 4만7000㎡ 규모였다.

상가 주민 설득 등 진통 끝에 이전 부지가 선정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여겨졌던 이주(정비) 사업은 지난 1년여간 제자리를 맴돌았다. 이주 대상지로 선정됐던 취가정 인근 부지가 문화재 영향권에 들어 신규 건축물 건립 등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뒤늦게 광주시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다.

부지 재선정에 들어간 무등산사무소는 애초 이주 후보지로 거론됐던 평모들, 충효분교, 충장사 일원 가운데 상가 주민 선호도가 높고 문화재 영향권에도 포함되지 않는 평모들 일원을 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최종 낙점했다.

이주민 보상과 이주단지 조성, 철거 및 훼손지 복원에 2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과 이주 단지 규모, 완공 시기 등에는 큰 변화가 없다.

광주시 북구 충효동에 위치한 평모들은 무등산과 인접한 넓은 들판(논밭)으로 첫 이주 대상지로 선정됐던 취가정 일원과는 1㎞가량 떨어진 곳이다. 광주호를 옆에 두고 무등산을 한눈에 올려다 볼 수 있는데다 주변에 취가정, 환벽당, 소쇄원 등 문화재도 다수 포진해 있다. 무등산 반딧불이 마을로 잘 알려진 평촌마을 인근이기도 하다.

원효사 상가 이주 단지가 조성되면 기존의 경관과 주변 환경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이주단지 부지 선정과 관련해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상가 주민, 광주시 의견을 수렴해 북구 충효동 평모들로 새롭게 대상지가 확정된 만큼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주 대상지 조성 사업시 무등산, 가사문화권 등 주변 경관을 헤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원효사지구 상가 평모들로 이전

무등산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 일지

▲1970년대 원효사 계곡 주변 상가 영업(39개)
▲2013년 무등산국립공원 승격, 훼손지 복원 계획 수립
▲2014년 말, 이주대상지 선정(북구 취가정 인근)
▲이주대상지가 문화재 영향권으로 드러나 재선정 돌입
▲2015년 말 북구 평모들로 부지 재선정(4만7000㎡규모)
▲2020년대 초 이전 완료, 무등산(상가터) 훼손지 복원

옛 학생회관 리모델링 시작 10일 미니굴삭기가 광주시 동구 충장동 옛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하 학생회관) 7층 옥상에서 본격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앞서 파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국비 등 113억원을 투입해 학생회관을 직업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해 올 연말 개관할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지카 모기’ 매년 증가 광주 2년 사이 6배 ⬆

‘흰줄 숲모기’ 채집 광주 3년간 413마리·전남 106마리

‘지카(Zika) 바이러스’를 옮길 가능성이 큰 ‘흰줄 숲모기’〈사진〉가 광주·전남 지역에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의 경우 2년 사이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질병관리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인천시 강화)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5년 모기 채집 결과’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광주지역에서 발견된 흰줄 숲모기는 모두 413마리로 2013년 44마리, 2014년 107마리, 지난해 262마리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채집된 전체 모기 19종 2만6938마리의 1.53% 수준이다.

전남지역에서는 2013년 44마리, 2014년 3마리, 지난해 59마리 등 모두 106마리의 흰줄 숲모기가 채집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10개 권역 22곳의 감시센터에서 전체 모기 개체수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마다 4~10월 사이 매달 2차례 24시간 동안 채집된 내용을 확인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제주에서 가장 많은 4298마리의 흰줄 숲모기가 발견됐으며 대구 791마리, 대전 551마리, 경북 439마리, 광주 413마리, 부산 402마리 순으로 채집됐다. 전북은 24마리, 경기·경남은 각각 11마리가 발견되는 수준에 그쳤다.

흰줄 숲모기는 ‘숲모기’라는 이름처럼 주로 수풀이나 나무들이 우거진 공원과 숲 속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지카 바이러스’의 주된 매개체는 ‘이집트 숲모기’로 확인됐지만 흰줄 숲모기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전국에서 채집된 모기 21만2695마리 중 흰줄 숲모기는 1.9%(4055마리)에 불과하다”며 “현재까지 채집된 흰줄 숲모기 중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된 모기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영광에 거주하는 임신부 A(31)씨가 ‘지카 바이러스’ 의심환자로 분류됐다가 지난 8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9일 오후 5시 현재 모두 27명의 의심환자 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물대포 사경’ 백남기씨 쾌유 기원 농민들 도보 순례

보성~서울 오늘 출발

전국 농민들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사경을 헤매고 있는 농민 백남기씨의 쾌유를 기원하며 보성에서 서울까지 도보순례에 나선다.

10일 백남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도보순례단은 11일 백남기씨의 고향인 보성(보성역)에서 ‘일어나요 백남기님, 함께 가요 밀밭으로’를 주제로 출발 기자회견을 하고 16박 17일 일정으로 도로순례를 시작한다.

도보순례단은 이어 화순, 광주, 장성, 고창, 정읍, 김제, 전주, 익산, 논산, 대전, 공주, 천안, 평택, 수원, 안산, 안양을 거쳐 오는 27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열리는 제4차 민중총궐기 및 범국민대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20일 오후 대전에서는 ‘국가폭력 발생 100일 전야문화제’가 예정돼 있고, 21일 오전에는 대전시청 앞에서 ‘농민에 대한 국가폭력 규탄과 쾌유 기원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

도보순례단의 상주 참여 인원은 30여명으로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총 회원 등이다. 또 순례 거점별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향후 대책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남편 목욕시키다 노부부 연탄가스 중독사

고흥·광주 교통사고 등 설 연휴 안타까운 죽음 잇따라

설 연휴 기간(6~10일) 노부부가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지는 등 안타까운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

설날을 이틀 앞둔 지난 6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동명동 한 주택 세면장 내에서 성모(85)씨와 성씨의 아내 손모(80)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집 주인의 아들(26)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옷을 모두 벗고 고무 대야에 앉은 채로, 손씨는 바로 옆에서 쭈그려 엎드린 채로 발견됐다. 또 세면장 내 연탄 화덕에서 목욕물을 데운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가 연탄 화덕에 물을 데워 교통사고로 몸이 불편한 남편을 목욕시키다 연탄가스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성씨 부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우편물이 쌓인 것을 이상하게 여긴 집주인의 아들에게 발견됐다”며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흥에서는 손녀를 안고 있던 60대 남성이 차에 치여 숨졌다.

고흥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8시42분께 고흥군 동강면 한 마을 입구 도로에서 송모(68)씨와 송씨의 손녀(3)가 김모(52)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이 사고로 송씨가 현장에서 숨졌으며, 송씨의 손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송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명절을 보내러 온 손녀를 돌보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새벽 4시47분께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한 시내버스 회차지에서는 안모(57)씨가 몰던 시내버스가 동료 직원 강모(66)씨를 치었다.

강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안씨가 첫차 운행을 시작하려고 버스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에서 강씨를 발견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제버릇 남 못 준 전과범…또 대기업 직원 사칭 ‘쇠고랑’

쌍나팔

○…대기업 직원인 것처럼 속여 수백만원어치의 등산복을 구매하는가 하면 돈을 빌리는 수법으로 서민들을 등친 50대 남성이 쇠고랑.

○…1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유모(53)씨는 지난 2014년 12월24일부터 3개월간 김모(여·56)씨의 등산복 매장에서 15차례에 걸쳐 360만원 상당의 의류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등 모두 4명으로부터 1570만원을 가로챘다는 것.

○…경찰 관계자는 “유씨는 지난 2011년에도 대기업 직원을 사칭해 억대 투자금을 가로챘다가 2년간 실형을 살았다”며 “주로 경기침체로 장사가 잘 안 되는 매장 업주를 속였고, 직원을 구하기 힘든 새우잡이배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선불금을 가로채기도 했다”고 설명.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수기동, 사무실전용
■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20층, 76평, 즉시입주가
■ 사무실 전용, 분할매매 가능
■ 대형주차장 완비, 주차 5대 무료
■ 매매-2억2천만원

월산동, 광전빌라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5층, 20평, 2013년도 중공
■ 전망좋음, 베란다있음, 관리비저렴
■ 현재 보증금 보5백만원에 월40만원임대중
■ 매매-1억1천만원(융 6천5백만원포함)

싸고 좋은물건
주인직매 H.010-3605-5000

보성, 복내면임야
■ 보성군 복내면 계산리 산 87외5필지
■ 26286평(13만평중1/5지분)
■ 전기시설완비, 임도 개설되어 있음
■ 장기투자 최고물건
■ 매매-1억3천만원

화순, 전원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동면방향, 광덕교차로에서 5분
■ 대지328평, 33필지 중 1
■ 기반시설 조성 중(화순군청)
■ 매매-1억6400만원(조정가)

경매, 낙찰물건 매매

▶사건번호 - 2015타경1564
▶전남 구례군 산동면 광산리 732-1번지
▶감정가/시세-14억5천만원
낙찰가-7억3천만원(입찰4명)
▶대지573평, 건물719평, 지하1 지상4층
▶1층-음식점 및 숙박시설, 2~4층-숙박시설
▶지리산 온천지구 내, 송원리조트 바로 앞, 현재 휴업상태
유치권해결, 명도완료, 주위에 매매물건 없음
게스트하우스, 수련원, 요양원 등등 모든 용도 가능
▶대출-6억 3천만원 확정, 법인체 인수 가능
▶매매가-협의
▶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

돈 되는, 근린상가

▶광주 서구 금호동 243-6번지, 대단지 아파트 밀집지역
▶서광병원 맞은편 4거리 코너, 만호초등학교 건너편
▶7층 건물중 701호(7층 전체), 120평, 전망최고, 대형주차장
▶감정/시세-7억원정도 ▶매매-5억6천만원
▶융자 3억 6천만원 있음 ▶보5천만원에 월240만원 임대 가능
▶주인 직매함
H.010-3605-5000